

원기89년도
원불교 마음공부세미나

마음공부의 정체성(개념) 연구

일 시 : 원기89년 10월 15일(금) 오후 2시

장 소 :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

주 최 : 원불교교화연구소 · 원불교사상연구원

원 불 교

원기89년도
원불교 마음공부세미나

원불교 마음공부의 정체성(개념) 연구

- ▶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론
발표: 최희공/원무·수위단원·고려대 교수
토론: 박광수/교무·교학대 교수, 이성전/교무·교학대 교수
- ▶ 자성을 세우는 마음공부
발표: 권도갑/교무 도봉교당
토론: 노대훈/교무·교학대 교수, 류백철/교도·국방과학연구소 팀장
- ▶ 원불교 마음 공부 개념에 대한 연구
발표: 김성훈/교무·교학대 교수
토론: 황도국/교무·중앙총부 총무부장, 백광문/교무·영산원불교대 교수

일 시 : 원기89년 10월 15일(금) 오후 2시

장 소 : 원불교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

주 최 : 원불교교화연구소 · 원불교사상연구원

원 불 교

원기89년도
원불교 마음공부세미나

원불교 마음공부의 정체성(개념) 연구

사회1: 차운재/교무·교화연구소
사회2: 정현인/교무·교학대 교수

1. 개회
2. 입장
3. 심고
4. 격려사(김일상 교화연구소장)
5. 발표 및 질의토론
 - ▶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론 ----- 1
발표: 최 희 공/원무·수위단원·고려대 교수
토론: 박광수/교무·교학대 교수, 이성전/교무·교학대 교수
 - ▶ 자성을 세우는 마음공부 ----- 13
발표: 권도갑/교무 도봉교당
토론: 노대훈/교무·교학대 교수, 류백철/교도·국방과학연구소 팀장
 - ▶ 원불교 마음 공부 개념에 대한 연구 ----- 21
발표: 김성훈/교무·교학대 교수
토론: 황도국/교무·중앙총부 총무부장, 백광문/교무·영산원불교대 교수
6. 질의 및 종합토론
7. 종합정리 및 인사
8. 폐식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론

최 희 공 원무(수위단원)

1. 서론

1.1 논지 해석의 표준

원불교 마음공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 객관적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원불교 교서(교전, 법어)와 법문집의 내용에 근거한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원불교 마음 공부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논지의 명확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1.2 논고의 내용

본고에서는 먼저 마음과 공부의 의미를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원불교 교서와 법문집에 나타난 마음 공부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체성과 원불교 마음 공부의 방향성을 살펴본 후 원불교 마음 공부 실현의 예로써 원불교 서울 청년 시민선방의 마음 공부를 알아보았다.

2.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의

2.1 마음의 의미

원불교 마음 공부를 정의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과 공부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의 하나이다. 마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과 정신(精神)과 성품(性稟)의 관계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정신에 대해서는 정전 제2 교의편 정신 수양의 요지에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分別性)과 주착심(住着心)이 없는 경지를 이룸이요」라 하여 정신을 마음의 상태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성품에 대해서는 정전 무시선법에 「원래에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 …」, 대중경 수행품 59에 「본래에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분별성 주착심과 분별 주착이

어떻게 구별되는 가를 밝히면 정신과 성품의 개념이 구별될 수 있다. 분별성과 주착심을 분별하는 습성, 주착하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분별과 주착을 사상(四相)과 국한(局限)을 벗어나지 못하여 우주의 대진리와 합일하지 못한 상태로 해석하면 정신과 성품이 구별된다. 대산종사께서는 성품을 우주의 대진리에 합일한 무한동력(無限動力)이라¹⁾ 표현해 주셨다.

마음에 대하여 교서와 법문집 상에 나타난 정의를 찾아보면, 정전 일원상의 수행에 「원만 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 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이라 하였고, 정산 종사 법어 원리편 12에는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 소이 하나 영명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라 하셔서 마음을 정의하고 있다. 일원상 서원문에서는 「심신 작용을 따라 욕도로 변화를 시켜…」라 하셔서 마음 작용이 각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본임을 밝혀주고 있으며 일상 수행의 요법 1, 2, 3조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라 하시고, 성리품 2에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나니라」하셔서 마음 작용은 능히 선할 수도 악 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각산 신도형 종사의 교전공부 정신 수양의 대의에는 「성품과 정신과 마음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굳이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성품은 전체요 정신은 광명이요 마음은 작용이라 할 수 있다」로 설명하고 있는 데 적절한 구분으로 생각된다. 원불교 교서와 법문집에 나타난 성품, 정신, 마음에 대한 설명과 왕양명의 사구교(四句教)에서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면 마음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왕양명은 사구교에서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이고(無善無惡是心之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은 의념의 발동이며(有善有惡是意之動),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양지이고(知善知惡是良知),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격물이다(爲善去惡是格物)라 했는데 이를 원불교 교법에 비추어 재해석해보면 무선 무악한 것은 심지체(心地體) 곧 성품이요, 유선 유악한 것은 의지동(意志動) 곧 마음 작용이요, 지선 지악은 양지(良知) 곧 공적 영지 혹은 정신이요, 위선 거악은 격물(格物) 곧 마음 공부라 해석된다.

위에서 살펴본 원불교 교서나 법문집상의 마음에 대한 설명과 사구교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마음은 공적 영지의 작용이라는 것
2. 우리의 마음은 원래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하다는 것

1) 대산 종사 수필집

3. 마음 작용은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다는 것
4. 일원상의 진리는 지공 무사하게 각자의 마음 작용을 따라 혹은 진급, 혹은 강급으로 욱도로 변화시키므로 마음 작용은 각자의 운명을 결정 짓는 조물주(造物主)라는 것
5.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慧福)을 얻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2.2 공부의 의미

공부는 국어사전에 「학문과 기술 들을 배우고 익힘」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원불교 교법에서의 공부는 이보다 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전 대중경에 공부와 비슷한 의미를 갖은 단어를 찾아보면 수행(修行), 처리(處理), 연마(研磨), 실습(實習) 등이다. 국어사전에 수행은 「행실을 닦음」, 처리는 「일을 다스려 치러감」, 연마는 「모르는 것을 힘써 알아감」, 실습은 「실지로 해보아 익힘」, 닦다는 「다스려서 바르게 기르다」로 나와 있다. 원불교 교법에서의 공부의 의미는 행실을 다스려 바르게 기르는 수행적 의미와 온전한 생각으로 몸과 마음의 작용을 진리에 부합되게 다스려 치러가는 처리의 의미와 진리와 교법을 배우고 연마하는 학습의 의미와 실지로 해보아 익히는 실습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정전 영역에서는 공부, 수행, 실습을 모두 practice로 번역하였다. 그것은 영어에서는 공부와 수행과 실습을 구분할 마땅한 단어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2.3 원불교 교서에 나타난 마음 공부

2.3.1 대중경

마음 공부가 교서에 명확한 개념으로 나타난 것은 대중경 요훈품 1의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이다. 여기서 마음 공부는 마음 작용하는 공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마음 공부가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됨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 과연 마음 작용하는 공부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중경의 법문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자.

대중경 교의품 29에서 대중사님께서 선원 대중에게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한 선원은 「삼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하고, 또 한 선원은 「인생의 요도

를 배운다 하겠나이다」하며, 그 밖에도 대답이 한결 같지 아니한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할 것이며, 거기에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하셨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종사님께서서는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삼대력 공부와 구분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 작용하는 공부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삼학 공부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위의 법문을 분석해보면 마음 작용하는 공부는 삼학 공부의 단순 함이 아니고 삼학을 종합 운용하여 교법을 현실에 구현시키는 마음 공부임을 알 수 있고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바른 도로 이용하는 마음의 운전의 공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는 교의품 30에서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교의품 30에서 대종사님은 용심법(用心法)을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善用)하는 마음의 조종법」으로 설명하고 계시다. 교의품 30에서는 마음 사용하는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이를 다시 용심법이라 하셨다. 마음 작용과 마음 사용은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있으나 교의품 29, 30에서 대종사님은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사용하는 법, 용심법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의품 30에서 중요하게 발견되는 것은 용심법의 목적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조정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 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데 노력할지어다.」이다. 그것은 마음 작용하는 공부의 목적이 개교의 동기에서 밝히신 광대 무량한 낙원 세계 건설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마음 작용하는 공부는 삼학 공부의 단순 함이 아니요 삼학을 종합 운용하여 교법을 실현하는 공부이며 제생 의세의 개교의 정신을 실현하는 마음 공부라는 것이다.

2.3.2 정전

정전에 나타난 마음 공부의 의미를 고찰해보자. 정전에는 마음 공부라는 직접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지만 사용하신 문구를 종합하면 마음 공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전 염불의 요지에는 「대범, 염불이라 함은 천만 가지로 흠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라 하셨으니 염불이 곧 마음 공부법임을 나타내셨고, 좌선의 요지에서는 「대법,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라 하셔서 좌선도 마음 공부임을 명확히 하셨으며, 무시선법에서는 「대법, 선(禪)이라 함은 원래에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선이 곧 마음 공부임을 알 수 있다.

정전에서 마음 공부의 요지를 가장 명확히 말씀하신 것은 일원상의 수행과 일원상 서원문, 무시선법이다. 수행이 공부와 가장 가까운 뜻을 생각할 때 일원상의 수행은 일원상의 마음 공부라 할 수 있다. 정전 일원상의 수행에는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 양성 하자는 것이며 …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일원상의 수행이니라.」하셨고 일원상 서원문에서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체 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라 하셨기 때문에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단순한 마음 공부가 아니요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하는 마음 공부요 법신불 일원상을 체 받아서 하는 마음 공부라 할 수 있다.

정전에서 마음공부를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무시선법이다. 정전에는 마음과 공부라는 단어가 각각 55번씩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무시선법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19번 공부가 4번 나온다. 이것은 무시선법이 원불교 마음공부법의 핵심임을 시사해준다. 정전 무시선법에는 무시선 공부는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요, 동정간 끊임없이 하는 선공부요,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되게 하는 공부요, 삼학을 병진하는 공부요,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라고 밝히시고 있다. 이 무시선법에는 원불교 마음 공부의 대지가 거의 다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삼학을 종합 운용하여 교법을 현실 구현하는데 있어서 무시선법은 그 핵심요체를 이루는 마음 공부법임을 알 수 있다.

2.3.3 정산 종사 법어와 법문집

정산 종사님 법어와 법문집에 마음 공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 한울안 한이치 제1장에서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 주인 되라」 하였고 법어 무본편에서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누누이 설명하시고 계시다.

무본편 1에서 「마음의 본말을 알고, 마음 닦는 법을 알고, 마음 쓰는 법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나니 …」라 하셨고, 무본편 6에서는 「마음 공부가 제일 근본이 되는 공부가 되나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하셨고, 무본편 9에서는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라 하셨고, 무본편 13에는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 마음 공부에 두고」라 하셨고, 무본편 19에서는 「우리가 이 도량에 사는 것이 근본에 있어서는 마음 공부 하나 하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정산 종사 법어를 살펴보면 정산 종사님께서서는 마음 공부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작용하는 공부 또는 용심법보다 좀더 포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공부에는 삼학을 종합 운용하여 교법을 구현케 하는 마음 작용하는 공부와 그 기본 능력을 얻게 하는 삼학의 전문 공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2.3.4 대산종사 법문

대산 종사님께서 마음 작용하는 공부에 대해서 밝히신 두가지 특성은 삼대력을 대중화력(大中和力)이라 하시고 원중불이(圓中不二)의 중화(中和)의 도 공부를 강조하신 것과 상시 응용 6조 공부를 용심법 = 인간개조의 묘방 = 전무후무한 대도정법 이라 강조하신 것이다.

원기 60년 「중도로 세계 평화」의 연두 법문에서 「중(中)이란 희로애락(喜怒哀樂)의 분별과 감정이 발(發)하기 이전의 소심(素心)의 상태로 우주의 대진리와 합일한 무한동력이요, 화(和)란 이러한 중에 바탕하여 희로애락의 분별과 감정을 나타내되 절도에 맞아 일체 만물(一切萬物)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하는 활생(活生)의 덕(德)을 말합니다.」라 하셨다. 이 법문을 살펴보면 중화(中和)의 도는 불리자성(不離自性)의 마음공부이며 활생의 덕은 교법의 현실 구현임을 알 수 있어서 중화의 도가 곧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작용하는 법임을 알 수 있다.

정전 대의(正典 大意)에서 대산 종사는 상시 응용 6조 공부는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이요 영생의 공부 표준이시며 누구나 스스로 성불하여 영겁에 불퇴전이 되도록 하신 법이다.」하셨다. 대산 종사님께서 상시 응용 6조 공부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용심법으로 또는 인간 개조의 묘방이요 전무 후무한 대도 정법으로 강조 하신 것은 상시 응용 주의 사항 속에는 삼학을 종합 운용하여 교법을 현실 구현하는 핵심 원리가 내재

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4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의

2.4.1 마음공부와 마음 작용하는 공부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대중경 요훈품 1에서 대중사님은 마음 작용하는 공부와 마음 공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뜻을 구분하면 마음 공부의 정의의 문제가 용이해진다. 앞에서 마음 작용하는 공부는 삼학을 종합 운용하여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과 모든 재주를 바른 도로 이용함으로써 교법을 구현해가는 공부로 정의하였다.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정산 종사 법어 무본편 1에서의 마음 사용하는 공부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문제는 간단해진다. 이 경우 마음 공부는 마음 작용하는 공부와 그 기본 능력을 얻게 하는 마음 닦는 공부와 마음의 본말을 아는 공부로 정의하면 된다.

사용과 작용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용은 「사물을 부러씀」, 작용은 「어떤 운동이나 현상을 일어나게 함」으로 되어 있어 그 사전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마음 사용하는 공부로 단순히 대치할 수는 없다. 정전 일원상의 수행과 대중경 교의품 29 그리고 작용의 사전적 의미를 종합하면 마음 작용하는 공부는 마음 작용이 일원상의 진리에 부합되게 일어나게 함으로써 모든 환경과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는 공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 공부가 모두 마음 작용하는 공부의 범주에 들 수 있다.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 공부가 모두 마음 작용하는 공부에 들 수 있다는 근거를 교전에서 찾아보자. 대중경 수행품 2장에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 할 것이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알음알이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 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끈임 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로 되어 있어 수양, 연구, 취사의 공부가 마음 작용하는 공부임을 나타내준다.

정전 무시선법에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眞空)으로 체를 삼고 묘유(妙有)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

을 작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定)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大乘禪)이요 삼학을 병진하는 공부법 이니라.」 하셔서 무시선법이 진공 묘유의 마음 작용하는 공부법이요, 마음 작용이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되게 하는 삼학 병진의 마음 공부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마음 작용하는 공부는

1. 마음 작용이 진리에 부합되게 일어나게 하는 마음 공부요
2. 천만 경계 중에서 모든 재주와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을 오직 자리 이타로 선용하여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마음 공부요
3. 삼학을 종합 운용하여 모든 재주와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함으로써 교법을 실현해 가는 마음 공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작용하는 공부는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들어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4.2. 팔정도와 마음 작용하는 공부

팔정도(八正道)는 부처님께서 대도를 이루시고 고집멸도 사제 범문을 하시며, 인생은 고(苦)요, 고의 원인은 집(集)이요, 집을 벗어나면 멸(滅)이요, 멸에 이르는 수행길이 도(道)라 하시고 그 바른 수행의 길(道)으로써 팔정도(定見, 正思, 正語, 定業, 正命, 正精進, 正念, 正定)를 말씀하셨다.

심신을 바르게 작용하는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대도를 얻게 하신 부처님의 범문과 마음을 진리에 부합되게 작용함으로써 만물을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하신 대종사님의 범문은 그 대의가 서로 같다 하겠다.

2.4.3.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체성

마음 공부라는 용어는 불교, 아보타 등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체성 확립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원불교 마음 공부를 사회로 확산시켜 나갈 방향성 설정의 전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체성을 교법 구현의 목적성, 공부 실현의 진리성, 삼학의 종합 운용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교법 구현의 목적성

원불교 마음 공부는 단순한 마음 공부가 아니고 원불교 개교의 정신과

일원 대도의 교법 정신을 현실 구현을 궁극 목적으로 하는 목적성 마음 공부이다. 개교의 정신과 교법 정신을 현실 구현하려는 원불교 마음 공부의 목적성은 원불교 교서 전반에 걸쳐서 맥맥히 흐르고 있다.

(2) 공부 실현의 진리성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단순한 마음 공부가 아니다.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 일원상과 같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아는 마음 공부이며, 공(空)·원(圓)·정(正)의 자성 원리를 깨달아 모든 마음 작용이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되게 하는 마음 공부이며, 우주의 근본 원리인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하는 마음 공부이다.

(3) 삼학 운용의 종합성

원불교 마음 공부는 단순한 마음 공부가 아니다. 삼학을 병진하고 삼학을 종합 운용하여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환경과 물질과 재주를 선용하는 마음 공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삼학 종합의 운용 능력의 획득은 수양, 연구, 취사의 기본 능력의 확보 위에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원불교 마음 공부는 삼학의 기본 능력 확보를 위한 저축 삼대력 공부와 이를 종합 활용하는 활용 삼대력 공부를 함께 배양하는 복합성 마음 공부라는 특성을 갖는다.

3. 원불교 마음 공부의 실현

3.1 원불교 마음 공부 정체성 확립의 과제

우리는 원불교 마음 공부를 사회·국가·세계로 확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일단 멈추어 원불교 마음 공부 정체성 확립의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 그래야 마음 공부가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일원 교화의 핵심적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원불교에서 행하고 있는 마음 공부는 방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적인 면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성의 원리를 깨닫고 자성의 원리를 활용케 마음 공부와 각자의 마음 작용을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마음 공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원불교 마음 공부가 사회에 확산되어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그것은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체성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하는 마음 공부와 삼학을 종합 운용하여 개교의 정신과 일원 대도의 교법 정신을 구현시킬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프로그램화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의 원불교 마음 공부 프로그램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정체성의 부분이 모두 포함될 필요는 없다. 하나의 마음 공부 프로그램은 그 적용 대상에 따라서 마음 공부 정체성의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강조된 그 한 부분의 마음 공부가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전체로 사회에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체성을 고루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적용 대상에 따라 사회에 널리 보급해서 원불교 마음 공부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릴 필요가 있다.

3.2 마음 작용하는 공부의 실현의 과제

대종사님께서 대중경의 교의품과 요훈품에서 말씀하신 마음 작용하는 법을 얻는 마음 공부 곧 마음 작용하는 공부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방법을 교법의 원리를 따라 생각해 보자. 그 핵심 요결은 무시선법과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의 복합 훈련에 있다 생각한다. 왜냐 하면 무시선법은 자성의 원리에 바탕한 마음 작용하는 공부의 원리가 대체가 모두 담겨져 있고, 상시 응용 주의 사항에 교법 현실 구현의 원리와 동시 삼학과 정시 삼학으로 삼학을 종합 운용하는 원리가 내재해 있으며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하는 원리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상시 응용 주의 사항 공부는 2조, 1조, 6조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 할 것이요
-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 할 것이요

반복 순환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3조, 4조, 5조의 정시 삼학공부로 삼학의 기본 능력을 얻는 공부를 병진하면 현실의 모든 문제를 교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되어 교법 실현의 핵심 매체가 될 것이다. 정전대의에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을 「대종사님의 용심법」이라 한 것은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은 대종사님의 마음 작용하는 공부법임을 나타낸다. 그런데 현재 원불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음 공부에서는 상시 응용 주의 사항의 공부가 중요하게 강조 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충이 요구된다.

3.3 원불교 서울 청년 수요선방의 마음 공부의 예

원불교 서울 청년 수요선방에서는 교법 실현을 위한 원불교 마음 공부의 실현을 위해서 다음의 훈련과정을 시행해오고 있다.

3.3.1 수요선방 마음 공부 훈련 내용

(1)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10시

- 불전 사배
- 선서문
- 염불 10분
- 좌선 20분
- 의두 연마 5분
- 일원상 서원문
- 무시선법
- 성가
- 요가 5분
- 강연(10분) 및 강평
- 정전 강의 40분
- 회화 1시간
- 저녁 심고

(2) 여름·겨울 종법사님 훈증 훈련 3박 4일

(3) 개인 문답·감정 마음 공부·진로 지도

3.3.2 수요선방 마음 공부의 단계

- (1) 마음대조공부 단계 : 마음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자성의 원리를 알아 마음대조공부를 생활 속에서 힘써 행한다.
- (2) 신맥·법맥 확립의 단계 : 역대 종법사님 들과 현 종법사님께 신맥·법맥을 대고 여러 스승님을 두루 공경하여 지도를 받아 공부한다.
- (3) 제생 의세의 서원을 세우는 단계 :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한 마음 한 몸·한 뜻으로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려는 서원을 세운다.
- (4) 전문 공부의 단계 : 정기 훈련법으로 정전공부·정전실습의 전문 공부를 한다.
- (5) 일과 특력의 단계 : 상시 훈련법으로 사시 정진하여 일과 속에서 특력한다.
- (6) 교법 실현의 단계 : 정전대의를 실현하여 새 가정·새 나라·새 세계

- 새 회상을 개척해간다.

3.3.3 마음 작용하는 공부

(1) 마음 발견하는 공부: 경계를 대할 때 마다 일단 멈추어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그 공부를 챙기자는 것이요.

(2) 마음 관찰하는 공부: 마음 작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것은 그 마음 작용을 가만히 자세하게 계속해서 바라보아서 그 마음 작용의 대소 본말을 잘 살펴 알자는 할 것이요.

(3) 마음의 원리 자각하는 공부: 우리는 마음 작용을 살펴보기 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작용 속에 깊어 있는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그 원리를 깨달아 알자는 것이요.

(4) 마음 처리하는 공부: 처리란 하기로 한 일을 당하여 다스려서 치러간다는 뜻이다. 마음이 작용할 때 마다 그 작용을 교법에 맞게 처리하자는 것 이니 마음 작용을 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첫째는 당처 처리이니 마음이 작용하는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처리하자는 것으로 마음 작용을 당처 처리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에 대한 당처 불공이 된다.

둘째는 유념 처리니 마음 작용에 대해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하고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연마한 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자성의 원리에 바탕한 처리이니 대치(對治)하는 공부, 대조(對照)하는 공부, 대중하는 공부는 다 자성의 원리에 바탕한 마음 처리의 공부법이다.

(5) 마음 사용하는 공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은 그 마음을 잘 사용하여 모든 재주와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함으로써 교법을 현실 구현하자는 것이요, 천만 경계에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함으로써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자는 것이다.

원불교 마음공부 개념을 중심으로 한
자성을 세우는 마음공부

권도갑 교무(원불교 도봉교당)

<목차>

1. 마음공부의 개념과 원리
 2. 마음공부는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공부이다.
 3. 마음공부는 문제를 내면에서 해결하는 공부이다.
 4. 마음공부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이다.
 5. 마음공부는 경계를 거울삼는 공부이다.
-

1. 마음공부의 개념과 원리

대종사는 정전에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개교의 동기로 밝혀주셨다(개교의 동기). 또한 범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범물의 사은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으로써 신앙과 수행을 함께 하는 것을 설하셨다(교법의 총설). 따라서 마음공부란 범신불사은을 신앙하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를 통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어 생활 속에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종경에서는 「마음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요훈품 1장)」 하시고, 「천만 죄복이 오직 이 심전계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에 있다(수행품 59장)」고 하셨다. 「이 심전(心田)의 공부를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의 천직으로 삼으신것」이며, 「심전농사에 크게 성공하는 농부가 되라(수행품 60장)」 하였고, 「우리 회상에서는 심전계발의 전문과목으로 수양, 연구, 취사

의 세 가지 강령으로 정하고 그를 실습하기 위하여 일상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셨다(수행품60장).」 하시며, 일상수행의 요법을 마음공부의 실천 덕목으로 제시하셨다.

정산종사는 「마음공부로 새 세상의 주인 되라(한울안 한이치)」 하셨다. 그리고 성품과 정신과 마음을 정의 하시면서,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령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다(법어 원리편 12장)」 하셨으며, 또한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게 되나니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량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하나니라(법어 원리편 16장)」 하셨다.

또한 정산종사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설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심지(心地)이다. 이 심지는 심원(心源)이며 자성(自性) 불성(佛性)이다」 하시고, 「자성에도 요란함이 있느냐? 아니다. 나의 자성은 공(空)하고 적적(寂寂)해서 제법(諸法)이 돈공 하였으나, 다만 이 요망한 분별심이 들어 요란한 것이다. 이를 깊이 자각하면 천만경계에 부동(不動)하고 자성의 정(定)을 여의지 않는다(정산종사 법설집)」 하셨다.

정산종사는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이니 그대들은 이 빈 마음을 잘 이용하여야 물질 이용도 잘 하게 되리라. 마음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법어 원리편 20장)」.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나니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빈 마음으로 하면 불보살이 된다.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법어 원리편 59장)」 하셨다. 결국 마음공부는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을 허공같이 비우는 데서 시작한다.

2. 마음공부는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공부이다.

정전 정신 수양장에 보면 「수양이라 하는 것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 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룸이니」 라고 하셨다. 여기서 정신수양의 핵심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는 것이다.** 이는 「우주만유의 본원」에 드는 것이며(일원상의 진리). 「언어도단의 입정처」에 들어가는 것이다(서원문). 좌선법에서는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무시선장에서는 「원래에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고 하셨다.

공부인에게는 먼저 분별주착을 놓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며 곧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고 있는 선하고 악하다. 유능하고 무능하다. 지위가 높다. 낮다. 아름답다. 추하다. 등의 분별은 모두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실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는 나의 관념이며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세상을 판단하고 긍정(옳고)과 부정(그름)의 눈으로 분별하며 바라본다면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방해가 된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 할 때 잠시 나의 반응을 살펴보자. 내가 감격하고 좋아하는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나는 속상해 하고 우울해 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행복과 불행이 상대의 판단과 평가에 좌우되며, 나는 그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다.

누가 나에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평소에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을 때는 기분이 좋고 고마울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문제가 많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칭찬이 부담스럽다. 상대가 나를 훌륭하다고 하면 기분이 좋고 나를 못났다고 하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면 나는 늘 상대의 평가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상대가 지닌 판단에 따라 나를 좋게 보고 있지만 이는 그의 견해 일 뿐이다. **그가 나에게 관해서 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어도단인 것이다.**

지금 여기 나의 현실은 분별 주착심(생각)을 내려놓으면 자성극락이요 정토낙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스스로 잘 되고 있다. 걱정과 불안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어두운 경험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지금 여기에는 언제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해결되는 무한한 위력과 능력이 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우리가 분별에 가려지지 않고 바로 지금에 충실하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은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경계)이 아니고 그에 대한 나의 생각(분별성과 주착심)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자각하고 여기서 깨어나야 한다.

3. 마음공부는 문제를 내면에서 해결하는 공부이다.

삶의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 해결하게 하는 것이 마음공부이다. 바깥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는 없다. 이는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외부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다. 모든 문제는 나의 굳은 신념과 고정관념, 나의 견해와 시각, 나의 분별심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를 내려놓아야 한다. 보조국사는 수심결에서 「결코 바깥에서 구하지 마라(切莫外求)」고 하셨다.

마음공부는 나의 문제를 내면에서 찾아 해결하는 공부이다. 어떤 사람의 행동에 내가 짜증을 내거나 속상해 할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나는 지금 자신의 어떤 문제로 속상해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순간 상대를 판단하는 문제를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임을 발견한다.

내가 지닌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투사하고 있다. 상대를 통해서 바라본 결점(문제)을 나 자신에게서 찾아보자. 만약에 그것이 발견된다면 상대는 바로 나를 일깨워주는 고마운 거울이 된다. 그는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상생의 인연이다. 언제나 스스로 보고 싶지 않는 나를 상대가 보여 줄때 나는 화가 나고 속상해 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자신에 대한 어두운 분별심(무명)이다. 예를 들면 나는 못났다. 무능하다. 무식하고 어리석다. 이기적이다. 권위적이다. 등등의 자기 부정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자신을 불신하고 무시하며 학대한다.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불신하며 부정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간절히 받고 싶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잘난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중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할 때 깊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사실은 상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 자신이 나를 무시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혼자서 자학하는 것이다. 상대는 한번 나를 비난하였는데 나는 수없이 그의 비난을 생각하며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면서도 이를 상대가 괴롭힌다는 착각을 하고 있으며, 그가 나를 상처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산중사는 남을 해하면 곧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며,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곧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고 높임이 되나니라.(법어 원리편 49장)하셨다.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으며,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만든다.

이제 자신의 목은 업장을 녹이고, 삶의 문제들을 치유하는 손쉬운 길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을 축원하는 일이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나의 분별이 녹아나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4. 마음공부는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이다.

성리품 2장에 보면 「사람의 성품이 정한 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 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하셨다. 나는 유능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다.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훌륭하지도 않고 평범하지도 않다. 그러면서 나는 능히 유능하며 무능하다. 능히 착하고 악하다. 능히 훌륭하고 평범하다.

때문에 나라는 것을 어떻게 언어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언어의 너머에서 나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나를 깊이 수용한다면 누가 나를 무능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거나 비웃어도 괜찮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다. 나에게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말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경이로운 존재이다. 아무런 판단분별 없이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깊이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가 있다.

누가 나를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 할 때 그 말은 지금 그 사람의 견해일 뿐이다. 때문에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기뻐하거나 좋아할 것이 없다. 내가 행복한 것은 그 사람의 칭찬이나 찬사가 아니다. 언제라도 그가 가진 나에 대한 분별은 변할 수 있다. 여기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와의 만남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많은 분별 즉 유능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헌신적이라는 것에 집착하여 기분 좋아하면 나는 그 순간 자유를 잃게 된다. 내가 이러한 분별에 집착하게 되면 나는 두려움과 불안과 구속을 느낀다. 이 사실을 여실히 본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거나 높이 평가 받고 싶다는 욕망이 사라진다.

우리에게 가장 큰 분별은 나와 너의 분별이다. 지금 여기서 내가 없으면 그곳이 극락이다. 어디서든지 나를 내세우면 긴장이 찾아온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 나를 주장하면 갈등이 일어나며, 내가 있으면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그런데 내가 사라지면 깊은 평온이 온다. 내가 없으면 지금여기 있는 그대로가 좋은 낙원이 된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아(無我)의 경지를 무아경(無我境)이라 한다. 이는 가장 큰 행복이다. 내가 없는 무아가 될 때 진정한 붕공이 일어난다. 의무와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삶에 희열과 기쁨이 있다. 지금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 나를 내려놓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상과 하나가 되면 나를 놓게 된다. 하나 되는 일은 조용히 바라보며 느끼면 된다. 상대를 신뢰하고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를 존경하고 축복하면 하나가 된다. 그러면 비로소 마음의 깊은 고요와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5. 마음공부는 경계를 거울삼는 공부이다.

이제 경계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려 본다. 경계란 마음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전체를 경계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어나는 나의 마음과 그에 대응하는 상황 즉 경계를 정확히 구별해 볼 수 있을 때 마음공부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다. 무시선법에서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온 것을 ~ 중략 ~ 동하면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계를 마음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명백하게 밝혀주셨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연기(緣起)하여 나타나는 것이 법이다」고 정확히 설하고 있다(意↔法) 여기서 법을 경(境)이라 하고 만법(萬法) 제법(諸法) 일체(一切)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통만법명일심(通萬法明一心)이라는 법문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다. 대종경 성리품 5장에서 대종사님은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大圓正覺)을 얻으리라」고 하셨다. 이는 대종경에서 대원정각을 이루는 법을 설 해주신 유일한 법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경계는 나를 행복하게도 괴롭게도 할 수 없다. 경계는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삶의 모든 문제는 내 마음이 원인(因) 되어서 나타난다. (果) 이것이 인과의 정확한 원리이다. 모든 만남은 내가 결정한 것이며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인과의 원리에 바탕 하여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이치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왜 나를 괴롭히니?」 「스트레스 주지마」 「너 때문에 미치겠어」 등등으로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경계는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 나의 어두운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다. 경계는 오히려 나에게 무한한 은혜요 축복이다.

따라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라는 말씀은 정확히 풀이하면 『경계에 대한 나의 어두운 생각 (분별주착)에 따라 있어지나니』 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야 분별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성(성품)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 마음공부를 열어 가는데 있어서

이러한 교리 이해가 바탕 되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경계는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곧 범신불사은이다. 대종사는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 중략 ~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 (대종경 교의품 4장) 라고 하셨다. 이렇게 원불교는 현실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원만하고 사실적인 종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저항하거나 뜯어고치려 말고 이를 수용하여서 자신을 밝히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것이 『삼학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며 『천만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 (무시선법)이라고 하셨다. 이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일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을 열어가는 것이다. 경계를 대할 때 마다, 상대의 밝음을 대조(회광반조)해서 나의 밝음을 드러내고, 어두움을 통해서 나의 어두움을 수용함으로써 천만경계에 부동하는 자성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원불교의 마음공부이다.

원불교 마음 공부 개념에 대한 연구

김 성 훈 교무(원불교사상연구원)

I. 마음공부 개념 정리에 대한 연구 필요성

1. 문제 제기

소태산은 마음공부보다는 용심법 마음쓰는 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정산 종사는 마음공부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용심법을 많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1979년 원불교사상 3집에 『원불교의 종교적 기능 고찰』에서 원불교의 종교적 기능은 「마음공부」라고 주장하였고, 이어서 10편의 마음공부 관련 논문들을 거듭 발표하면서 ‘마음공부는 원불교 교화정신의 표상’이며 ‘교화의 본질’로 원불교의 정신적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후로 마음공부가 용심법을 대신해서 일반화되어 가는 경향이었으나 근래에 마음공부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해되면서, 마음공부 개념에 대한 교학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교화 현장으로부터 제기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17회 국제불교문화 학술회의에서 「21세기 종교의 기능과 원불교」라는 주제로 21세기 종교의 중심 기능은 마음공부라고 발표한 바 있는 필자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독특한 원불교 교화 방식으로 삼으면 마음공부가 매력 있는 원불교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마음공부 개념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발표했던 자료들을 다시 참고하여, 교서를 중심으로 마음공부와 관련된 단어들의 원불교적 의미를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다. 원불교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이지만 그 뜻이 일반적인 의미와 교서에서 쓰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주제에 비해서 발표 시간과 지면의 제약 때문에 폭넓고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라고 보고 앞으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2. 마음공부에 대한 교단적 관심 배경과 분석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마음공부 정체성 확립에 대한 원불교 사상연구원 세미나에서는 최근에 마음공부에 대한 토론이 교단적 관심을 끌고 있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긍정적 배경으로는

[1] 원불교 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음공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와 함께 일부 효과가 확인되었고.

[2] 그동안 교단적으로 인증할만한 실제적인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공부 정체성이 확립되면.

[3] 종교 색을 배제한 사회적 접근 방법의 하나로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

[4] 마음공부 정체성 연구와 프로그램 진행 원리에 대한 사회적 선점 효과와 차후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교화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비판적 배경으로는

[1] 교단 내 서로 다른 교리 해석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에 대한 교도들간의 오해와 혼선으로.

[2] 교도 관리의 이중 구조 형성 우려가 있고.

[3] 교리 해석상의 사소한 차이가 장차 교도들간의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은, 다양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수계농원에서 시작된 경계 중심 마음공부 프로그램과 도봉교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성을 세우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이 서로 교리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계농원 경계 중심 프로그램은 마음의 원리 파악 문제에 있어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를 해석할 때 원래 요란함이 없는 마음을 眞空으로 보고, 경계를 따라 갖가지 마음들이 있어지는 것을 妙有로 보고 있다. 즉 갖가지 마음이란 경계를 따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경계 해석의 특징은 內境보다는 外境 중심의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 해석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전후의 문맥 관계보다는 단어 하나의 뜻이나 토씨 하나에도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일기 문답 감정의 핵심으로 是非利

행가 감정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그 시비이해의 분석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의 여지가 있고, 大小有無의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집단상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성을 세우는 프로그램은 마음의 원리 파악 문제에 있어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를 해석할 때 원래 요란함이 없는 마음을 眞空이 아니라 假空으로 보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도 묘유가 아니라 假有이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 이를 없애려는 것이다. 경계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계는 문제가 될 수 없고 오직 자성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를 ‘경계에 대한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에 따라 있어지나니’로 이해하고 있다.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으면 自性이 세워져서 천만 경계에 부동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됨으로, 마음공부는 분별성과 주착심[망념]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성을 세우는 공부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분별심과 주착심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으며, 외경과 내경을 분리하여 내경 중심으로 하는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 환경과 관계 없이 주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 참는 공부, 피경 공부, 상대를 이해하는 공부, 상대를 이해하는 등의 공부는 무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밖같 경계를 무시할 정도의 일반적인 경계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경계에 직면할 경우에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개인적 갈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교리 해석은 차이가 있으나 진행 방식이나 결과적인 효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공부의 단계로 보아서 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일원상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원불교의 마음공부를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다만 프로그램 개발자와 진행자의 독특한 교리 해석과 진행 방식으로 교화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II. 마음공부에 대한 일반적 견해

마음공부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음에 대한 개념을 알아

보아야 하는데

* 마음에 대한 관점은 性善說에서부터 性惡說에 이르기까지 너무 다양하다.

* 마음은 원래 없는 것이라는 원시불교적 관점에서부터 마음은 원래 있는 것으로 보는 심리학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各樣各色임을 알 수 있다.

* 원불교에서 마음은 有無超越의 入定處이며, 能善能惡[성리2]으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偈頌에는 “有는 無로 무는 유로 유와 무가 俱空이나 구공 역시 具足이라” 하였고, 空圓 正과 養性 見性 率性으로 설명하고 있다.(교의품 7장)

다음은 논문 구성상 마음을 보는 여러 견해에 대한 일반적 경향들을 알아보기 위한 참고 자료 선정 방향이다. 자료 선정의 기준은 유 불 도 三敎를 중심으로 마음에 대한 이해의 맥락을 한국 사상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싶었고, 가능하면 원불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를 알아보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 1) 유교적 관점 : 공자 맹자 주자 왕양명 퇴계 율곡
- 2) 불교적 관점 : 三法印 唯識論 達磨大師 慧能大師 元曉大師 普照國師 修心訣 金剛經 般若心經
- 3) 도교적 관점 : 노자. 장자 김가기 김시습 권극중
- 4) 심리학적 관점 : 융. 초월심리학. 명상심리학.
- 5) 기타 수행 단체들의 관점 : 증산교. 天道敎. 마음수련원. 단학. 丹월드. 국선도. 천도선법. 淸海無上師. 한마음선원. 석문호흡. 연정원. 仙道. 法輪功 등

Ⅲ. 원불교 마음공부 이해에 필요한 용어 해석.

1. 성품 정신 마음 뜻 생각 心地 意 영혼의 원불교적 의미

원불교 마음공부를 논하기 위해서는 성품 정신 마음 뜻 생각 心地 意 영혼의 원불교적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마음공부를 설명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자주 쓰이고, 그 뜻과 개념이 아직 분명하게 정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성품은 본연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英靈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니라.」[원리

12.]

위의 법문에서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을 개념의 크기 순서대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성품은 본연의 體 > 정신 > 마음 > 뜻[意].

1) 性品

성품은 본연의 體로서, 이는 自性佛이며 교학적으로는 一圓이다.

일원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일원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한다.[교의 6]

우리의 ‘성품은 본래에 분별과 주착이 없고’ .,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 발하는 것이 발에서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 바탕을 心田’ 이라 한다.[수행59] 부처님이나 영가나 성품자리도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구족한 성품이다.[천도5]

2) 精神

정신은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主着心이 없는 경지를 이룬다.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英靈한 감이 있는 것이고, 寂寂한 가운데 星星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한 것이다.[수행12]

그러나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이나, 욕심 경계를 따라 천지만엽으로 흩어져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지혜의 광명이 매하게 되므로,[수행13.] 욕심을 제거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 경계를 따라 천만가지로 흩어질 수도 있다.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여 물질의 노예가 되었으니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야 한다고 한 것으로 보면 정신은 쇠약해지기도 하고 확장시킬 수도 있다. [개교의 동기]

3) 마음

교서에서 마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1) 성품이나 부처님의 의미로써 마음

心佛 一圓相에서 마음은 自性佛이며 일원상이다.

일원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다.[원리3]- 마음과 성품은 부처이며 법으로서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즉 心佛로서 自力信이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無量壽라 할 것이요, 또한 昭昭靈

靈하여 昧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覺이라 이것을 自心彌陀라고 한다.
[염불법]- 무량수와 自心彌陀는 자성불로서 성품이다.

불경의 정수는 空이니, 공의 원리를 알고 공의 진리를 체받아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르며 닦아 행하라. [원리 21]- 공의 원리와 공의 진리는 허공과 같이 빈 마음 空心을 의미한다.

우리의 自性은 如如하여 변함 없는 자성극락이다. [염불법]- 自性極樂은 涅槃寂靜의 성품 자리이다.

(2) 만물의 근본이나 주인의 의미로써 마음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된다.
[요훈3]

빈 마음은 만물의 주인. 禪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 이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니, 마음 허공을 잘 알아 이용하면 세계의 주인이 되리라.[원리 20]

일체는 다 마음의 짓는 바이다. 一切唯心造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 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 마음은 인생의 참다운 보물이다.[무본31]

사람은 그 마음이 중추의 책임이 되니, 모든 책임의 중추가 되는 마음의 운용에 주의하라.[인도23]

(3) 분별 작용 할 수 있는 마음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원리12]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내가 正化身佛이요, 삳되고 어두울 때에는 便化身佛임을 알아야할 것이다.[원리5]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마음의 동정으로 인하여 무명이 발생하게 되나니, 마음이 정하면 청정하여 명량하고 마음이 동하면 요란하여 무명이 발생한다./원리16 : 마음의 동정으로 분별 작용.

마음이 정한즉 大靈에 합하고 동한즉 개령이 나타난다./원리 15

마음이 오래되면 풀어지기 쉽고 경계에 부딪치면 흔들리기 쉽다./무본24

심신작용을 따라 六道로 변화를 시킨다./일월상 서원문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이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된다./교의 30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나니, 챙기

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수행1

성품에서 선악간 마음이 발하는 것이 밭에서 농작물과 잡초가 나오는 것과 같다.[수행59] : 心田啓發(4) 길들이고 키우고 養性할 수 있는 마음.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 용하자. [일원상 수행]- 양성할 수 있는 마음

마음이 극히 微한 것이지마는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 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난다./원리 33 : 키울수 있 는 마음. 三大力을 키우는 마음.

염불은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 [염불법] : 일심 양성, 잡념 제거, 스트레스 해소. 등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昇降을 벗어난다./원리 22 : 無念無想, 禪定, 좌선의 공덕.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하므로./ 생사 6 : 一心공부, 無時禪의 강령.

4) 뜻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니, 뜻은 곧 마음이 동하여 가는 곳이다. [원리12] 한편 일반적인 뜻의 의미는 “무엇을 하려고 속으로 먹은 마음”이다.[국어 사전] 한문으로 뜻의 자 意는 “뜻. 마음. 생각. 글이나 말의 뜻”의 의미 로 쓰이고 있다. 意義. 文意. 등 意 > 의

5) 생각

마음공부에서 한 생각은 마음씨로 마음공부의 비릇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지기 때문에 생각의 의미를 교학적으로 연마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 다.

생각은 마음이 眼 耳 鼻 舌 身 意 六根 경계에 머무를 때 나타난다. 일반 적으로는 “마음에 느끼는 의견. 바라는 마음. 관념. 연구하는 마음. 깨달 음[겨우 생각이 나다]. 추억. 고려. 의도 목적. 사모. 그렇다고 침. 간주. 각오”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불교적 의미로 생 각하면 뜻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생기는 것으로 볼 때, 생각은 뜻으로부터 나오는 분별 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개념의 크기로 보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성품은 본연의 體 > 정신 > 마음 > 뜻[意] > 생각.

6) 心地

심지는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한 것으로 보면 정신과 마음의 의미쯤으로 쓰이고 있다. 그동안 심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으나 모두 개인적인 수준의 의견이었지 교학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다. 불교에서는 心地無亂定[육조단경]이라고 한다. 보통 심지는 “마음의 본 바탕. 마음자리. 心田”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국어사전], 원불교 사전에서는 心田과 佛性和 같은 뜻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하면 교학적 의미의 心地는 마음 바탕이므로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 정신의 의미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7) 靈魂

영혼은 虛靈 不昧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다. [원리 12] 사전에는 “죽은 사람의 넋. [佛]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의 본원이 되는 실체. 육체와 함께 인간을 이루되, 신령하여 불사 불멸하는 정신. 육체와 구별되어, 육체에 머물면서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 魂. 靈”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산 종사께서 ‘영혼은 虛靈 不昧한 각자의 정신 바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靈性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性品 本性 自性 佛性 神性 心印 본마음의 의미

마음공부를 논할 때 性品 本性 自性 佛性 神性 心印 본마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이해하는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자주 등장하면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의미 전달이 확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말의 뜻은 한가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원불교 문화권에서는 같은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같은 뜻으로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원불교학이 보편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리 용어의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 정립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일체 중생의 本性에 대한 의미는 교리도에서 “一圓은 法身佛이니 우주 萬有의 本源이요 諸佛諸聖의 心印이요 일체중생의 本性이다”라고 한다.

성품은 본연의 체라고 하였고, 일원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요 제불제성의 심인이기 때문에 본성과 심인은 성품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본성은 自성이요 佛性이며 본마음이다.

불성을 서양철학이나 神 중심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神性이다. 그러므로 성품 본성 자성 불성 신성 심인 본마음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다.

IV. 알려진 마음공부 프로그램

1. 경계 중심 마음공부

여기서 境界의 의미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일과 대상이며, 실존적 삶의 현장이다. 마음공부에서 경계는 마음 경계의 준말이다.

수계농원에서 했던 정전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중심으로 일기 기재, 문답 감정 등으로 진행한다. 그 중에서도 심지는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림이 없지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므로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을 어떻게 없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음에 경계를 당하면 그 경계를 공부할 기회로 인식하고,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여 원래 없던 마음을 대조하여 본래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2. 자성을 세우는 마음공부

인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분별 主着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착각으로 보고 있다. 경계는 심지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 등에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어두운 마음으로, 온전한 자성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계란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여 경계는 호수 위를 날아가는 기러기와 같고, 물결은 그 그림자를 보고 물고기가 놀라서 펄떡거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괴롭힌 사람은 없다.155]

따라서 마음의 동요는 내 마음에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과 자비로 포용하며,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 훈훈한 삶을 열어가야한 다는 것이다.

3. 영산대학 정전 실습 마음공부

영산원불교 대학 예비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전 중심의 훈련 프로그램이다. 주 2시간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어 있다. 주요 목표는 실행하여 익히는 공부, 對自 문제와 對他 문제를 교법으로 해결하는 공부, 문제의 발견과 해결하는 원리, 문답 감정 해오를 통한 교법 연마와 실천, 교리 전반의 실습 등이다.

4. 시민 선방 마음공부

원불교 청년 지도자 양성과 출가. 재가 예비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아가 새삶 운동을 통하여 일원대도와 삼동윤리 정신을 국민운동. 인류 운동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 교도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내용은 정기 훈련 과목과 상시훈련법의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과 상시응용주의사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5. 마음공부 프로그램 실천 사례 : 초. 중. 고. 청년 일반

1) 초 중 고등부 마음공부 실천 사례, 영산대 출판국. 『마음공부 잘하여 새 세상에 주인 되라』 상, 179-270쪽. 2000. 참고.

2) 영천 중앙초등학교 제3학년 4반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 '99 「마음대조 일기 모음집」 담임 이병호(원우)

3) 전대성. 『마음공부』 경주 화랑고등학교, 2000, 목민사.

4) 도덕교육원 프로그램 : 원광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5) 만덕산 농원 프로그램 : 승산 양제승 법사 지도

이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한 특징이 없다.

V. 원불교 마음공부 개념

1. 用心法과 마음공부의 용어상의 구별

소태산은 주로 용심법 마음쓰는 법을 사용하였고, 정산종사는 『정산종사법어』에서나 『한 울안 한 이치』에서 뿐만 아니라 생전 법문할 때 마음공부를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용심법은 마음쓰는 법 마음 작용하는 법으로 실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마음 작용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心法으로, 活佛의 방법론적인 측면이 강조된 의미가 있다.

마음공부는 마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고, 공부도 수도한다는 의미에서부터 무시전의 禪공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쓰

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공부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마음공부 > 용심법

특히 마음은 우리 고유 언어로 한문이나 외래어로 그 뜻을 담기 어려운 깊은 의미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심법보다는 마음공부가 한국인의 언어 정서에 맞고 의미 전달상의 호소력도 강하다. 예를 들어 4월 초파일(佛誕日)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청소년이나 대중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가, 부처님 오신날로 바뀌면서 대중의 호응을 얻어 국민적 행사가 되었다. 대중 교화에서 단어 하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다.

2. 마음공부의 분류

1) 법위등급 6단계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 여섯 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다.

보통급 :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십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다.

특신급 :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다.

법마상전급 : 법과 마를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無關事)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기사(大忌事)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勝)을 얻는 사람의 급이다.

법강항마위(法強降魔位) : 육근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 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 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노·병·사에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다.

출가위(出家位) : 대소 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

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 : 대자 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萬能)이 겸비하며, 천만 방편으로 수기 응변(隨機應變)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 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다.

2) 執心 觀心 無心 能心

마음 공부는 執心 觀心 無心 能心 공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집심(執心) 공부니, 염불 좌선을 할 때와 일체 때에 마음을 잘 붙잡아 외경에 흘러가지 않게 하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고삐를 잡고 놓지 않듯 하는 것이요,

둘째는 관심(觀心) 공부니, 집심 공부가 잘 되면 마음을 놓아 자적(自適) 하면서 다만 마음 가는 것을 보아 그 망념만 제재하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고삐는 놓고 소가 가는 것만 제재하듯 하는 것이요,

세째는 무심(無心) 공부니, 관심 공부가 순숙하면 본다는 상도 놓아서 관하되 관하는 바가 없기를 소 길들이는 이가 사람과 소가 둘 아닌 지경에 들어가 동과 정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다.[정의 65]

넷째는 能心 공부니, 마음을 지나치게 급히 묶으려 하지말고 간단없는 공부로써 서서히 공부하며, 집심(執心)과 관심(觀心)과 무심(無心)을 번갈아 하되, 처음 공부는 집심을 주로 하고 조금 익숙하면 관심을 주로 하고 좀 더 익숙하면 무심을 주로 하며, 궁극에 가서는 능심(能心)에 이르러야 한다.[권도48]

3) 견성(見性) 5단계

견성에 다섯 계단이 있다,

첫째는 萬法歸一의 실체를 증거하는 것이요,

둘째는 眞空의 소식을 아는 것이요,

세째는 妙有의 진리를 보는 것이요,

네째는 保林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大機大用으로 이를 활용함이다.[원리9]

3. 마음공부의 다양한 의미

1] 원불교 마음공부는 신앙과 수행을 의미한다.

원불교 교리체계는 일원상 진리를 중심으로 신앙문과 수행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문에서는 일원상 진리와 인간과의 관계를 四恩의 은혜로운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수행문에서는 三學 竝進修行으로 일원상 진리를 깨달아 갈 수 있는 수행법을 밝혀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일원상 진리에 합일해 가려는 신앙과 수행의 두 길이 모두 마음공부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2] 마음공부는 원불교 교리정신의 표상이다. 마음공부는 간단히 줄여서 공부라고도 하는데, 이 마음공부는 원불교의 교리적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

로 드러낸 표현이며 교리정신의 표상이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마음공부라는 용어와 뜻에 익숙해 있고, 따라서 원불교 교도나 수행자를 공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3]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며 “마음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그러기 때문에 마음공부가 중요하다.[요훈 1.3.4]

4] 마음공부는 바로 마음 사용하는 법으로 이 용심법은 참 문명 세계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교화의 본질이다. 소태산은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고 하였고,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항상 자리아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어,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 양면으로 한가지 참 문명 세계 건설에 노력하라고 하였다.[수행 29.30]

정산종사께서도 “마음공부 잘하여 새 세상에 주인 되라.” 하였다.

5] 마음공부는 생활속에서 하는 수행의 원리이다. 마음공부는 마음을 닦는다. 修道한다. 도를 닦는다. 마음에서 진리와 도를 연마하고 찾는다. 진리 공부 등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마음공부는 수행의 원리이다. 그런데 원불교 수행의 특징은 생활을 떠나지 않고 하는 수행이다. 그러므로 생활은 곧 수행이며 공부와 둘 아닌 것이다. 生活是佛法. 靈肉雙全. 理事並行.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중략,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공부할 기회가 이르렀다 하여 그일 그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재미를 삼는다” [수행32]고 한 것은 생활과 수행 공부가 둘 아니라고 하는 한 예이다.

6] 신앙과 불공의 원리로써 마음공부이다. 원불교의 범신불 신앙은 일원상 진리 신앙뿐만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이다. 곳곳마다 부처님의 위력이 있으니 일마다 불공하여 사실적으로 복락을 구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공부를 통하여 이치에 맞도록 하는 사실적인 불공법이다.

7] 의두 성리가 일원상을 깨달음의 대상으로 하는 마음공부이다. 등상불을

모시지 않고 일원상을 모신 뜻은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견성 성불의 화두로 삼자는 것이다. [경의편3]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는 것이니, 성리는 모든 법의 조종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종교의 문에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다.

8] 마음공부는 성불하고 성인 되는 길이다. “성불하고 성인 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이 내 마음으로 공부하기에 달린 것.” 이다.[권도27] 이와 같이 마음공부는 인격완성의 참다운 원리이며, 마음의 빛을 밝히는 원리이며, 그 마음의 빛은 인격적 삶의 빛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삶 자체가 선이며, 불공이요, 마음공부이기 때문이다.

9] 일원상 서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일이 마음공부이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일원상을 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誓願한다고 하였으니,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향하여 일분일각도 공부심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10] 마음공부는 종교의 중심 기능이다. 종교의 중심기능으로써 마음공부는 인류 시민의 보편운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신적 철학이며, 인격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의 지혜이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21세기 들어 건강의 개념을 수정 보완했는데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靈적으로 정상적인 상태” 라고 정의한다. 영적인 건강은 영성 수련인 마음공부를 하지 않으면 유지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공부는 신앙과 수행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깨달음과 성불의 원리으로써 사사불공과 무시선과 성리 의두 연마가 모두 생활 속에서 하는 공부법이다. 이 마음공부는 원불교와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의 교화 본질이라고 볼 수 있다.

4. 마음공부 개념 정리

1) 공부인

마음공부 개념을 논하기에 앞서 마음공부를 하는 공부인에 대한 원불교적 의미를 먼저 파악해 보아야한다. 참다운 마음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적인 중생이 아닌 공부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원상 서원문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범신불 일원상을 체반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 중략-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 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體性)에 합하도록 까지 서원함” .이라고 했으니, 원불교적인 의미로는 일원상 서원을 세운 때부터 중생이 공부인으로 진급되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중생으로 태어났지만, 일원상서원 즉 성불제중의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향해 정진하고 마음공부 하는 진화 과정으로써 삶의 의미를 부여한 원불교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중생으로 태어나서 道와 成佛을 향한 서원을 세운 공부인이 되어 부처가 되어 가는 진화의 과정으로써 인생의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온 일반적인 人生觀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소태산은 道와 佛法의 的的大義 즉 性품을 연마하고 마음공부 한다는 뜻에서 교도들을 공부인이라 불렀다. 원불교에서는 처음부터 교도나 수행자를 원래 공부인이라고 불렀으며, 교도라고 부르는 것은 최근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공부인이란 아직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중생이 일원상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향하여 정진 적공하려는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도나 궁극적 진리에 대한 뜻을 세우고 참 마음이나 참 나를 찾기 위하여 정진 적공하려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 마음공부에서 성품과 마음.

앞에서 마음의 의미는 크게는 성품과 자성불과 일원상의 의미에서부터 뜻과 생각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폭 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원불교에서 마음은 성품이며 自性佛로서 일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석은 용처에 따라서 정신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마음일 수도 있고, 뜻일 수도 있고, 마음공부의 비릇이 되는 생각일 수도 있다.

마음공부라고 할 때의 마음은, 성품의 體와 用으로 볼 때는 용의 작용을 하는 妙用의 성품이며,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英靈한 정신에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을 때의 정신이며, 마음에서는 양성 견성 술성 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한다.

마음공부에서 성품과 마음은 근본이 같은 것이나, 성품은 진공의 체로서 본마음이요, 마음은 성품에서 妙有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千態萬象의 調和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놓으면 없고 잡으면 있어지는 것이다. 마음에서 뜻과 생각이 나오는 것이니 한 마음 한 생각이 마음공부의 비릇이 되는 것이다.

원래 우리말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사람의 의식, 감정, 생각 등 모든 정신 작용의 근원이 되는 것. 그 정신 작용의 총체. 타고난 성격이나 성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신 활동. 본래 생각. 본심. 감정 기분 등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 남에게 베풀거나 배려하는 태도.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나 의향. 등의 의미가 있다.

교서에서 마음의 용례는 心佛 일원상이지만 성품으로서 마음. 만물의 근본으로서 마음. 분별하는 마음. 양성할 수 있는 마음.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마음에 대한 제약 없는 연구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하여, 마음은 자성불인 심불 일원상과 성품의 의미로 보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3) 마음공부의 개념

마음공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술을 통하여 원불교 마음공부 개념을 정의하자면

첫째 마음공부는 공부인이 “일원상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이룰 때까지 신앙하고 수행하며 性理를 연마하는 모든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마음공부를 道 중심 종교적으로 정의하면 “도에 뜻을 세우고 도를 이루어 가려고 정진하는 신앙 행위와 수행 積功의 모든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唯一神의인 종교 개념으로 마음공부를 정의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복종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神性を 깨달아 하나님과 한 몸 한 기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정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불교에서 마음공부는 일단 일원상 서원을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 서원이 없는 마음공부는 일상적인 수행이나 수련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원이 없는 공부는 무정란이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 마음공부의 목표는 일원상 서원 즉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일하자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진리와 도를 깨달아 인격을 완성(成佛)하자는 것이다. 일원의 위력은 쏠

全能한 부처님의 慈悲光明과 智慧능력을 의미하며, 일원의 체성은 부처님의 心印과 원만구족하고 至公無私한 부처님의 인격을 뜻한다.

마음공부 개념에 신앙 수행과 함께 성리 연마를 포함시킨 것은, 일원상을 모신 봉불의 의미가 참된 성품의 원리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일원상을 견성 성불의 대상으로 연마하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든 공부인은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하고 수행하고 일원상을 깨달음의 대상으로 성리를 연마하는 가운데, 사사불공하고 무시선 하자는 것이다. 실존적 삶의 현상이 바로 수행 도량이므로 일상생활 할 때 그일 그일과 순간 순간을 공부 삼아 自性を 여이지 않고 정성스럽게 정진하는 것이 마음공부다.

그러므로 중생이 서원을 세우고 부처가 되어 가는 진화과정으로써 원불교적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뜻에서 일원상 서원을 이룰 때까지 모든 삶의 과정은 마음공부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소태산과 정산종사가 주장한 用心法과 마음공부의 진정한 의미는, 중생이 서원을 세우고 至誠으로 노력하면 누구나 通萬法明一心하여 일원상 서원을 이루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생이 부처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서원과 신심과 公心과 공부심으로 法悅을 느끼며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진급의 과정이 마음공부이다.

부처가 되어 가는 진화과정으로써 마음공부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더욱 효과적인 교화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어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은 원불교 마음공부 개념 정립에 목표를 두었지만, 마음공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할 연구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였다. 우선 마음에 대한 다각적 시각에서 연구 토대가 확립되어야하고,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본체론적 관점이나 人性論的 관점 또는 心性論的 관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객관적인 마음공부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한계는 원불교 교서 내에서 원불교적인 마음공부에 대한 의미와 개념 정립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지금까지 자기의 가르침이 완전한 진리와 종교와 수행법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완전한 수행과 공부법은 없다. 모든 수행과 공부법은 각기 독특한 특징이 있을 뿐이다. 하나의 산봉

우리로 향하는 길이 많은 것처럼 수행하는 공부 길도 다양할 수 있다. 오직 진실한 수행자만이 서원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공부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다양한 만큼 그 뜻과 프로그램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용심법, 마음 쓰는법, 마음 다스리는 법, 마음 작용하는 법, 심법에서부터 일기와 有無念 대조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요도 四恩 四要와 공부의 요도 三學 八條가 모두 마음 공부이며, 일원상 서원 신앙 수행뿐만 아니라 성리 연마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음공부이다. 한마디로 通萬法明一心 공부가 마음공부이다.

원불교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도 넓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교리 한 구절 한 구절을 體認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계층과 문화적 상황성에 맞게 개발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프로그램들도 교리 해석상의 차이를 들어 시비를 논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특징을 살려, 絶長補短의 지혜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유념할 점은 자기 방식이 최고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강조한다든지, 그것이 마음공부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도 도가 있고 공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부흥사들이 자기 설교를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내 교도 만들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교화 발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지금처럼 비슷한 몇 개의 프로그램만 있으면 선택의 폭도 좁고 서로 장단점이나 우열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각처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진행의 특징상 일반 시민들도 인연 따라 참여하여 효과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공부 프로그램은 원불교 브랜드로 시민 사회에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마음공부 프로그램은 일원대도의 호대하고 원만구족하며 지공무사한 가르침 중에서 아주 작은 수행 방법의 일부분을 가지고 시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효과를 본 일부 사람들이 심취하여 일방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다 보니까, 이미 正法大道의 法悅로 속 깊은 공부 길을 잡고 묵묵히 정진하는 대다수의 많은 공부인들이 한 때 의아하게 생각한 일이 있었다. 그것도 마음공부 하는 사람의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인, 권위적인 배경을 가지고 진행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 분위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일부가 과장되어 원불교 마음공부를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교리 전체를 다룰 수는 없다. 교리와 연관성을 갖는 하나 하나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진행 과정까지 만들어지고, 실제적인 진행 경험을 살려서 거듭 보완된 뒤에 비로소 완성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것들은 모아서 마음공부 프로그램 모음집을 만들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화에 효과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제 진행을 거듭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진행자들의 세련된 진행 방식과 법력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진행자들의 능력과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교단적 격려 분위기도 중요하다. 21세기에는 수행 문화가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고 연구 발표한 바 있는데, 도덕과 법력을 갖춘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수도자들이 모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부심이 부족하고 법력이 밀받침 해주지 못하는 종교 직능자들은 시설물 관리자 역할 밖에는 할 일이 없을 것이다.

※ 참고 : 교리학습을 위한 다양한 마음공부 프로그램 개발의 한 의견.

1. 교화 상담론적 이론 정립 : 마음공부 상담론 개발
2. 개인 상담론 : 氣和 心和
3. 집단 상담론 : 會話
4. 신앙-진리적 종교의 신앙. 만유가 한 체성 만법이 한 근원. 인과보응의 이치. 일원상 진리와 법어.
5. 수행- 사실적 도덕훈련. 사상공부. 마음
6. 性理-心佛? 마음이 곧 부처? 道? 一切唯心造. 참 마음 찾기. 참 나 찾기. 일원상 닮아가기. 일원상 법어. 偈頌
- 7 坐禪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체계적 훈련- 무시선으로까지 응용.
8. 진리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9. 돌리는 공부- 원망 생활을 감사생활로. 일상수행 5-9
- 10 自性을 세우는 공부- 정 혜 계. 일상수행 1. 2. 3.
11. 나쁜 습관 제거- 戒文 떼기. 일상수행 4조
12. 좋은 습관 길들이기 - 率性要論
13. 인간관계 훈련- 心和 氣和. 마음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경청. 표정 읽기. 되어보기.
14.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갈등. 고부간의 갈등. 제가의 요법. 부부의 도.
15. 事上공부 - 상시응용 주의사항
16. 견성공부- 見性 5단계
17. 무시선- 무시선법. 무시선 4단계
18. 범위등급 단계별 인증- 범위등급. 승급자 견성 법문. 생존하는 범위표준 인격자의 실증교학적 모델 제시.
19. 정기일기 각 과목. : 염불(念佛)·좌선(坐禪)·경전(經典)·강연(講演)·회화(會話)·의두(疑頭)·성리(性理)·정기일기(定期日記)·상시일기(常時日記)·주의(注意)·조행(操行) 등의 과목
20. 상시응용주의 사항 각 과목. : 상시응용 주의 사항(常時應用注意事項)」 육조(六條)와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教堂來往時注意事項)」 육조.

※ 참고논문

1. 마음공부 관련 참고.

김성장, 원불교의 종교적 기능 고찰. 원불교사상 3집. 1979.

김성장, 원불교의 종교관, 원광대학교 논문집 23집. 1989.

김성장, 사회병리현상과 종교의 중심 기능, 인류문명과 원불교사상, 1991

김성장, 마음공부와 상담, 학생지도연구 12호, 1991

김성장, 정산종사와 교화 상담, 원불교사상 15집, 1992.

김성장, 원불교 교화의 개념과 교화정책 결정에 관하 문제,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 1993.

김성장, 소태산의 교화상담 원리와 실제, 원불교사상 17. 18 합집. 1994.

김성장, 21세기 불교의 전망과 과제, 17회 국제불교 문화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1.

김성장, 마음공부 상담론 연구, 한국불교학 연합회 학술 발표 논문. 2002.

김성장, 불교대학 교육에서 신앙 수행 깨달음의 문제, 18회 국제불교 문화 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2. 소태산 사상 연구원, 마음공부 잘하여 새 세상의 주인되라, 상. 2000